

# 나주시, '나주밥상 대표 맛집'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발표

### 음식점 인식·맛집 지정 기준·대표 음식 선호도 등 설문 먹거리 관광 명소화 전략 '나주밥상' 종합계획 수립 박차

나주시가 지역 대표 맛집 지정·육성을 위한 '나주밥상'(가칭) 종합계획 수립의 첫 단추가 될 '소비자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설문은 향토 음식 자원의 보존,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위한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 기초 자료 수집 목적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나주밥상 브랜드화는 대대로 이어져온 나주 향토음식의 명맥 보존, 나주만의 특색이 있는 밥상 육성을 통해 먹거리 관광자원화를 도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설문은 '응답자 기본조사', '나주시 음식점에 대한 인식', '나주대표 맛집 지정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 3개 분야 19개 문항으로 구

성했다. 온라인(QR코드·누리집 팝업창) 설문으로 2주 간 진행된 조사에는 전체 접속자 4323명 중 44.3%인 1919명이 참여했다. 기본조사인 응답자 성별은 남성 51.1%, 여성 48.9%, 연령대는 30대(42.1%), 40대(24.7%), 20대(19.6%) 순으로 30~40대가 과반을 차지했다. 본 설문인 '나주시에 가볼만 한 맛집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8.6%(1700명)이 '있다'고 답했다. 음식점 선호도는 '한식'이 78.7%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양식(6.8%), 일식(5.6%)이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나주 대표 음식은 '곰탕'(78.1%), '홍어'(7.1%), '불고기'(4.8%), '장어'(4.5%), '기타'(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표 맛집 지정 시 생각되는 음식 종류도 '곰탕류'(31.5%), '불고기·생선 등 구이류'(15.6%), '고기보쌈·홍어삼합 등 수육'(12.6%) 등으로 유사성을 보였다. 음식점 개선 사항으로는 시설환경(29%), 맛(21.8%), 친절도(19.4%), 위생(18.5%), 상차림(11.3%) 등 분야별로 고르게 분포했다. '나주밥상 대표 맛집 지정 시 방문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방문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맛집 지정 기준으로는 '지역 향토 대표 음식 메뉴 취급'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장 환경(정결·위생·화장실 등)'(26.1%), '로컬푸드 식재료 사용'(11.1%), '상차림'(9.9%) 등을 꼽았다. 대표 맛집 1인의 적정 가격대는 '1만원 내외'가 전체 응답자 중 64%(1229명)로 가장 많았다. 시는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표 맛집 지정·육성 기준을 마련하고 관내 외식업소 대상 나주밥상 참여 업소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조리·외식 전문가 등 외부평가단을 구성하고 공정성 있는 평가, 선정 등을 통해 나주밥상 대표 맛집을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나주밥상 맛집 지정·육성의 목적, 계획, 지원·관리 등을 담은 '나주시 나주밥상 맛집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도 연내 제정·공포될 예정이다. 나주=송준표 기자



##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신임위원 9명 위촉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내년 고인돌 사계절 축제 준비 본격화

화순군이 지난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 신임위원을 위촉하고, 고인돌 사계절 축제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10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이 사직해 재정비가 필요했다. 군은 관광, 문화예술, 학계, 언론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 9명을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 3명과 기존 위원 3명을 포함, 총 15명의 위원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재정비했다. 신임 위원 위촉 후 열린 위원장·부위원장 선거에서는 조재윤 전 나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주옥선 생활개선중앙연합회 감사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2023년 추진 예정인 고인돌 사계절 축

제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최 시기와 테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화순군의 아름다운 사계절 특색에 맞춰 봄에는 봄꽃과 함께하는 고인돌 축제로, 여름에는 캠핑뮤직페스티벌로, 가을에는 국화향연으로, 겨울에는 별빛 축제로 고인돌 유적지 축제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새롭게 구성된 화순군 축제추진위원회의 시작을 축하드린다"며 "군민과 함께 우리 군 축제 발전에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고인돌 사계절 축제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화순=박승철 기자

## 담양군 청년공동체 발대식 개최...청년 지원사업 본격화

담양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년공동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전남형 청년공동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활동비 집행 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단위로 시행되던 청년공동체 사업을 '21년도부터 지자체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도비지원을 통해 청년 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사업대상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된 5명 이상의 공동체(팀)로, 최종 선정

된 4개팀은 팀별로 5백 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아 약 5개월간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병노 군수는 "청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확대를 통해 청년이 찾아오는 담양을 건설하겠다"며 "제2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통한 담양형 일자리 창출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김한중 장성군수,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조속 설립 촉구 타당성 재조사 시행기관 KDI·기획재정부 관계자 잇따라 면담

김한중 장성군수가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케이디아이)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조속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요청했다. 김한중 군수는 지역구 이기호 국회의원, 전라남도·장성군 관계자와 함께 KDI 이종구 경영부원장, 김형태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을 만나 타당성 재조사의 빠른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나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을 청원하는 장성군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내년도 국회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앞선 10월 26~27일에도 양일간에 걸쳐 여야 핵심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신

속한 타당성 재조사 진행과 2023년도 사업예산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관련정책 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광주연구개발특구 장성나노산단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기획재정부 요청에 따라 KDI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장성군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의 최후 지로 손꼽힌다.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첨단산업단지과 연계한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하며, 고속도로와 KTX가 경유하는 교통의 요충지다. 장성=기획재정부

## 곡성군, 연남 자동차세 환급 접수 창구 운영

곡성군이 자동차세의 신속한 환급을 위해 연남 자동차세 환급 접수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납세자 편의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에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미리 낸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급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면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민원실 9번 창구를 자동차세 환급 접수 창구로 운영하기로 했다. 창구를 통해 신청할 경우 10일 이내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곡성=양혜영 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	